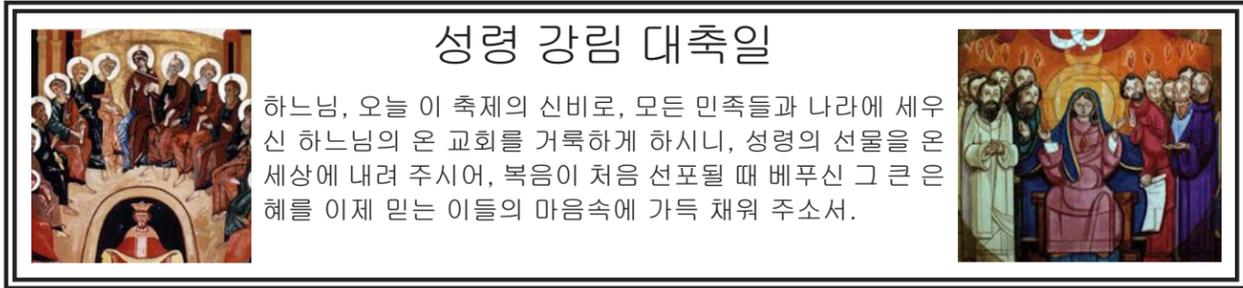


공동체 소식



성령 강림 대축일

하느님, 오늘 이 축제의 신비로, 모든 민족들과 나라에 세우신 하느님의 온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니, 성령의 선물을 온 세상에 내려 주시어, 복음이 처음 선포될 때 베푸신 그 큰 은혜를 이제 믿는 이들의 마음속에 가득 채워 주소서.

6월 기도지향

- 유길수 크리스토퍼, 유경애 아녜스 가정
- 이우영 가브리엘, 김수연 율리안나 가정

☞ 교황님의 기도 지향: 실업자들이 품위 있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도움과 일자리를 찾도록 기도합니다.

예수 성심 성월

교회는 해마다 유월을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을 드러내신 예수 성심에 대한 공경과 묵상을 강조하는 예수 성심 성월로 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의 마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사랑을 호소하십니다.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남아서 나와 함께 깨어있어라”(마태26,38).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마태11,28).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이시며 하느님이시기에 그 마음은 절대적이고 무한한 사랑의 원천이십니다.

성령칠은

- 굳셈: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쁜 마음으로 올바른 것을 지키도록 용기를 주는 은사
- 두려워함: 하느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을 경계하고 그분과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하게 하는 은사
- 슬기: 하느님의 뜻대로 판단하게 하고 구원이 필요한 일에 이끌리게 하는 은사
- 의견: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게 하는 은사
- 지식: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믿어야 할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분별하게 해 주는 은사
- 통달: 하느님의 계시를 잘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은사
- 효경: 하느님을 흠숭하고 하느님과 연관된 사람이나 사물을 존중하게 해 주는 은사

맨하턴 공동체 미사

- 일시: 6/14(토) 오전 11시
- 장소: 맨하턴 성 토마스 모어 성당

재무감사에 따른 지침

- 현금/교무금 수납자 별도 선정
- 재무 대리 육성
- 재정보고 Quickbooks 침삭(번역) 금지
- Quickbooks 파일 백업과 재정 서류 보관 철저

기타

- 저희 공동체는 재무감사에 따른 캔사스대교구의 지침을 최대한 수렴하여 재정의 투명성에 힘쓰겠습니다. 평협 일동.
- 다음 주일(6/15), 평협 회의 있습니다.
- 구역회의 결정대로 6~8월까지 구역모임은 없습니다.

전례 성가

시 작	예 들	성 체	마 침
493	220	153/180	200

주일미사 복사

	향 복사	시중 복사
금주	문예나 (요 안 나)	안광민 (야 고 보)
	안지영 (카타리나)	문석찬 (요 셉)
차주	문호진 (안토니오)	정병훈 (보니파시오)
	이원준 (요 한)	이우영 (가브리엘)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해설자	제1독서
금주	박혜정 (카타리나)	제2독서
		조장군 (바 오 로)
차주	지은경 (리 브 가)	우숙정 (아나스타시아)
		류기범 (요 셉)
		신혜경 (마 리 아)

애찬 봉사자

금주	최선윤, 정선식, 서정애, 김수연
차주	김시연, 신혜경, 조경희, 김말자, 배복선

헌금 봉사자

금주	김시연 (엘리사벳), 백문주 (엘리사벳)
차주	최은미 (아 네 스), 박희영 (카타리나)

우리들의 정성

	참례인원	헌금	교무금
6/1	82명	510불	1,650불
박동희, 도태영, 김현동, 김대성, 이내익, 양경직, 김병철, 김정환, Gorman, 김정애, 정준구(총 11세대)			

성령 강림 대축일

“보이는 것은 잠시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2코린 4,18-

2014년 6월 8일

캔사스한인천주교회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Kansas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913)563-7896 www.kckcatholic.org

주보 편집 : 김원철 바실리오 412.576.5075 willkim777@gmail.com

미사시간
주 일: 11:00 AM
화요일: 7:00 PM
목요일: 10:00 AM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예비자교리
주일 10:00 AM

주임신부 주영길 토마스
M: 913.633.1273
jooyk88@gmail.com
회장 홍순익 마르티노
M: 913.486.4204

부회장 김태중 예레미아
M: 913.963.7521

재무 차호섭 요셉
M: 614.598.7908
hscha72@gmail.com

오늘의 전례

오늘은 성령 강림 대축일입니다. 교회의 삶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불어 넣어 주신 성령에서 비롯합니다. 성령에 따른 삶은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듯 용서의 삶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오신 성령께 용서와 화해를 실천할 은총을 청하며 정성을 다해 이 미사에 참여합니다.

성화해설

오소서 성령이여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요한 20,22-23)

유대인들이 두려워 제자들이 문을 잠그고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 시어 그들에게 성령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용서와 평화, 기쁨으로 채워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성령의 선물을 보내 주십니다.

그림 김옥순 수녀 | 성바오로딸수도회

제 1 독 서 : 사도 2,1-11 <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가득 차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



◎ 주님 - 당신 열을 보내시 - 고 우리의 모습을 새롭게 하 소 서

○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크시고 크시어라, 주 저의 하느님.
주님께서 하신 일이 많고도 많건마는! 온 땅에 당신 조물 가득 차 있나이다. ◎

○ 열을 거두시면, 그들은 숨겨버려 드디어 티끌로 돌아가고 마나이다.
보내시는 당신 열에 그들은 창조되어, 우리의 모습은 새롭게 되나이다. ◎

○ 주님의 영광은 영원하소서. 주님께서서는 이루신 일 기뻐하소서.
이 노래를 기꺼이 받아들이시면! 주님 안에서 저는 즐거우리이다. ◎

제 2 독 서 : 1코린 12,3c-7.12-13 < 우리는 모두 한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오소서, 성령님. 저희 마음을 성령으로 가득 채우시어, 저희 안에 사랑의 불이 타오르게 하소서. ◎

복 음 : 요한 20,19-23 <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성령을 받아라. >

쉐 마

“성령의 선물”



피정을 다녀왔습니다. 피정을 지도하신 수녀님께서서는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면 있고 있었던 상처들, 그러나 나의 삶에 많은 아픔을 주는 상처들, 하느님께 가지 못하게 가로막는 상처들을 치유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태중에 있을 때 받은 상처, 자라면서 받은 상처, 부모·형제·이웃에게 받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런 상처는 ‘희망기도’를 통해 치유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희망기도는 청원기도와는 달리, 나의 희망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무엇을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되면 좋겠습니까”라는 희망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중요한 일, 소중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중요하고 소중한 일들이 기쁘고 즐거우면 좋겠지만 그런 일들이 커다란 짐으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마음에 큰 부담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고 소중한 일입니다. 그런 공부가 부담된다면 재미가 없을 것이고, 공부를 잘하기 어렵습니다. 직장인들은 회사에 열심히 다니고, 창의적인 것들을 만들어 내야 합니다. 그런 일들이 부담된다면 직장 생활이 재미없을 것입니다. 아내들은 가정을 돌보고, 밥 하고, 설거지 하고, 시장을 봅니다. 자녀를 키우는 일, 남편을 위해서 맛있는 식사를 준비하는 일, 가족을 위해서 청소하는 일이 부담된다면, 그것이 해야 할 의무가 된다면 이 또한 재미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대축일입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는 것이 큰 부담이었을 것입니다. 말이 다른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정말 큰 부담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다가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질 수도 있고, 예수님처럼 죽임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들을 떠나야 하고, 앞으로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실지 걱정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제자들의 그런 모든 부담을 기

쁨으로, 희망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가장 사랑하시고, 기뻐하셨던 일들은 사람들의 믿음이었습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살렸다. 나는 유대인들에게서는 이런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주님은 우리의 능력, 재능, 업적을 보지 않습니다. 주님께 대한 믿음을 가진다면 다른 모든 일은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각자는 살아가면서 부담스러운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에게 강의와 강론 준비가 부담스럽듯이, 어떤 분들은 사람들을 만나는 일이, 어떤 분들은 기도하는 것이, 어떤 분들은 가족을 돌보는 것이, 어떤 분들은 누군가를 도와주는 일들이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또 우리는 각자 끊어버리고 싶은 악한 습성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게으름이, 어떤 분들은 노름이, 어떤 분들은 알코올 중독이, 어떤 분들은 미움과 분노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 대축일을 지내면서 성령의 은사를 청했다면 좋겠습니다. 슬기, 통달, 굳셈, 지식, 의견, 효경, 두려움의 은사를 청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부담과 악한 습성들을 하느님께 드리고, 성령의 은사를 청하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읽은 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성령이 아니 계시다면 하느님은 멀리만 계신다. 성령이 아니 계시다면 그리스도는 과거에 머무신다. 성령이 아니 계시다면 복음은 죽은 문자에 불과하다. 성령이 아니 계시다면 교회란 한낱 조직에 불과하다. 성령이 계시면 부활하신 하느님 여기 계시고, 복음은 찬란한 생명력을 내뿜고, 교회는 성삼위와의 통교를 의미하고, 권위는 해방자의 섬김이 되며, 선교는 성령 강림의 축제가 된다. 전례와 그리고 미사는 하느님 왕국에 미리 참여함이 되고, 인간의 행위는 성령으로 하느님으로 가득 차리라! 아멘.”

- 서울대교구 조재형 신부 -

주춧돌

제 1 편 하느님 공경

제3-2장 네가 성공할 것이다

오직 너는 더욱더 힘과 용기를 내어,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율법을 명심하여 실천하고,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벗어나서는 안 된다. 그러면 네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이 율법서의 말씀이 네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그것을 밤낮으로 되뇌어, 거기에 쓰인 것을 모두 명심하여 실천해야 한다. 그러면 네 길이 번창하고 네가 성공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분명히 명령한다. 힘과 용기를 내어라. 무서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마라. 네가 어디를 가든지 주 너의 하느님이 너와 함께 있어 주겠다(여호 1,7-9).

< 주석 >

말씀이 네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마음에 새겨둠을 의미한다. 밤낮으로 되뇌이는 것이다. “되뇌어”로 옮긴 말의 어근은 ‘중얼거리다’를 뜻한다(주석 성경, 531).

실천해야 한다: 하느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는 것만으로 부족하다. 행동이 따라야 한다. 야고보 사도는 2, 26에서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이듯 실천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입니다.”라고 말한다.

하느님이 너와 함께 있어 주겠다: 하느님께서서는 아브라함과 함께 계셨고, 이사악과 함께 계셨으며, 야곱과 모세와도 함께 하셨다. 하느님이 함께 하실 때 놀라운 역사가 함께 있었다.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도와주시리라는 약속이다”(주석 성경, 532).

< 설명 >

성경이 말하는 성공의 비결은 무엇인가? 성경이 말하는 성공의 비결은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다. 하느님께서 함께 하실 때, 하느님의 놀라운 업적도 함께 한다. 하느님과 함께 하는 비결은 바로 하느님께 순종하여 따르는 것이다. 하느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실천하는 것이 바로 성공의 비결인 것이다.

< 교회 가르침 >

▶ 유일하신 하느님에 대한 신앙은 하느님이 아닌 모든 것에 대하여, 그것이 하느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것이면 선용하고, 하느님께 등을 돌리게 하는 것이면 멀리하도록 해 준다(가톨릭교회교리서, 226항).

< 어록 >

▶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 저를 당신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을 거두어 가소서.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 저를 당신께 가까이 가게 하는 모든 것을 주소서.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 저를 당신께 온전히 바치도록 저 자신을 버리게 하소서(성 니콜라스 폰 플뤼에).

▶ 너는 나와 같이 계시건만 나는 너와 같이 아니 있었나이다. 당신 안에 있지 않으면 존재조차 없는 것들이 이 몸을 붙들고 너에게서 멀리했나이다. 부르시고 지르시는 소리로 절벽이던 내 귀를 트이시고, 비추시고 밝히시사 눈멀음을 쫓으시니, 향내음 풍기실 제 나는 맡고 님 그리며, 님 한 번 맛본 뒤로 기갈 더욱 느끼우고, 님이 한 번 만지시매 위없는 기쁨에 마음이 살라지나이다(성 아우구스티노).

- 『신앙생활 보감』, 청주교구 복음화연구소, 2013 -